■광주 온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현스님

"남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 마음·세상·자연의 조화 필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며 잘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복 되게 하고, 나와 남이 다 행복해지면 청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순회법회 차 광주 중흥동 지장왕사를 찾은 덕현스님(맑고향기롭게 이사장·서울 길상사 주지)는 '무소유' 화두의 의의와 맑고향기롭게 운동의 의미에 대해 담담하게 밝혔다.

지역 최초로 문을 연 법정스님 기념관 개원식과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서 덕현스님은 송광사 불일암에서의 스님과의 인연과 스님이 강원도 산골에 칩거하며 '맑고향기롭게'를 발원할 당시의 일화를 전하며 '무소유'의 정신이 일상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를 설파했다.

덕현스님이 22일 지장왕사에서 법정스님 기념관 개원식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사)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 제공〉

송광사 불임암에서 법정스님을 모실 때, 작은 것에서부터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은 "흔히 무소유의 정신이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만 소유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이상'이 포함된 개념"이라며 "'무소유'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모델이 우리가 실천하고자하는 '맑고향기롭게'운동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면서 '맑고향기롭게'는 마음과 세상, 자연을 모두 맑고 향기롭게 만들려는 운동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스님이 길상사를 시주 받을 때의 일도 이야기했다.

밥의 시주 보다는 법 시주를 신념으로 삼았던 스님은 길상사 시주를 신중하게 고민했으며 절을 창건하고서도 터럭만큼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법정스님이 책도 많이 써 많은 재산을 굴렸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스님은 상좌들에게도 사사로이 용돈이상은 주지 않으셨다"며 "입적하신 후 알고보니 스님에게서 장학금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일상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하고 사회적으로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부분을 남을 위해 쓸 목적으로 떼 놓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법정스님의 입적 후 사회적 반향으로 '맑고향기롭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개 지부에서 1만 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큰 단체로 성장했다"며"예산규모와 활동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중앙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점차 활동 범위도 넓혀 국제 구호 활동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창립된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본부장 한상민)는 그간 자비의 도시락 봉사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현재 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덕현스님은

담양출생.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법정스님을 은사로 송광사에서 출가했다. 1990년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정각사에서 수행했다. 2009년 3월 길상사 6대 주지로 취임했으며 법정스님 입적 후 지난 5월 '맑고향기롭게' 제2대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박수영 피아노 독주회 28일 5·18 문화관 민주홀

박수영〈사진〉 피아노독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다.

청소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BBS 광주북구지부가 자선음악회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서 박씨는 변욱씨가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젊은 시절 브람스의 열정을 만날 수 있는 피아노협주곡 1번과 브람스 특유의 중후함과 더불어 이탈리아 여행의 감흥을 담은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한다.

박씨는 전남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파리 콘서바토리 인터내셔널에서 수학했다. 현재 조선대와 목포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CN피아노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11-9617-57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318의 창, 그리고 소통'

'제12회 한국청소년영상제' 29~31일 광주영상문화관

'풋! 고추이야기' '미운 아기오리' '추빵' 등 10편 상영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영상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2회 한국청소년영상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유·스퀘어광장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다.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영상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차두옥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영상제는 전국 최고의 영상잔치로 청소년이 중심에 선 국제영상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18의 창,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상제는 지난 8~9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뮤지컬 드라마 '풋! 고추이야기' 극영화 '미운 아기오리', 단편영화 '추빵' 등 10편이 상영된다.

대상(상금 150만원), 금상(100만원) 등 모두 5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번대회부터 감독상, 시나리오상 등 개인상과 청소년 심사단상을 신설해 시상한다.

첫날인 29일 오후 6시 유·스퀘어광장에서 청소년 밴드와 댄스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막식이 펼쳐지며 작년 대상작 '아버지' 등이 개막작으로 상연된다.

30일 오후 1시부터 10월 31일 오후까지 본전진출작 상영과 청소년 감독과의 대화, 해외초청영화 상영이 준비됐으며 31일 오후 4시 폐막식에서는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또 행사기간 부대행사로 영상자료전시회가 열리며 30·31일 양일간 청소년 심사단 워크숍이 개최된다.

주민과 함께 영화보기, 코디체험전, 쥬얼리 공예체험 행사도 함께 한다. 문의 062-368-804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bout Film Festival

작은 돌멩이 비스듬히 던졌더니 그림 속 잔잔한 수면이 '퐁퐁퐁'

'움직이는 그림전' 시립미술관

이현진 작 '물수제비 던지기'

"엄마~ 그림이 움직여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오는 2011년 2월13일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움직이는 그림'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별이·신도원·이상필·이현진·방현우·허윤실·배재혁·최영준·박진현씨가 참여한다.

이들은 관람객이 직접 작품 창작에 참여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인터렉티브 아트(interactive art)를 선사한다. 벽에 걸려 있는 작품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차원을 벗어나 어린이들이 작가와 작품 창작을 함께 하는 체험형 전시다.

김별이씨는 관람객이 함께 그려나가는 미디어 회화 작품 '드로잉 큐브'를 전시하고, 신도원씨는 아이들의 그림을 디지털 회화로 만들어 나가는 '디지털과 아이가 만나는 곳'을 선사한다.

또 이상필씨는 목베개에 유년시절을 비롯한 과거의 기억을 그려 넣은 'The orchestra in a dream 2010'을 출품했다. 문의 062-613-71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2회 동초 대상'에 송순섭 명창

송순섭(75·광주시립국극단장·사진) 명창이 24일 제12회 동초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초 대상'(상금 1000만원)은 고흥 출신 소리꾼으로 판소리와 창극 및 고법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판소리 다섯 바탕을 정리 출판, 국악계에 공적을 남긴 동초 김연수 선생을 기리는 상이다.

호방하고 기개 넘치는 동편제 소리를 잇고 있는 송 명창은 김연수 선생 살아 생전에 직접 소리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로 국악발전(공연, 연구, 지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뚜렷한 업적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12회 고흥동초국악제 행사 중 고흥전국판소리경연대회 경연 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송선생은 최근 (사)한민족문화협회가 수여하는 제3회 한민족문화예술대상에서 국악부문 대상도 수상했다. 한민족문화예술대상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발굴, 공적을 기리는 상이다.

소리 인생 53년째인 송 명창은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예능 보유자로 선정됐으며 신재효 선생을 기리는 '동리대상', KBS국악대상, 광주시 문화예술상, 동리대상, 전주세계소리축제 으뜸상, 화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WiFi internet zone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희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 문의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정겨운 연인과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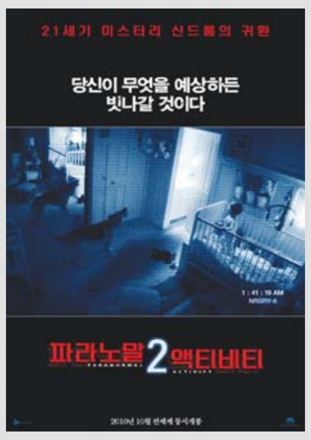
상무점

1관	방가?방가!(12세)
2관	22블렛(18세)/무적자(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4관	심야의FM(18세)
5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적인걸-측천무후의 비밀(12세)
6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7관	된장 (12세)
8관	참을 수 없는(18세)
9관	검우강호(15세)
10관	월스트리트(12세)

하남점

1관	심야의FM(18세)
2관	검우강호(15세)
3관	심야의FM(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5관	슈퍼배드(전체)/적인걸 (12세)
6관	22블렛(18세)/방가?방가! (12세)
7관	참을 수 없는(18세)
8관	된장 (12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10관	월스트리트(12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최고급관
2관	검우강호(15세)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3관	된장 (12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심야의FM(18세)
5관	심야의FM(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참을 수 없는(18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9관	월스트리트(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CINUS

1관	방가?방가!(12세)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22블렛(18세)
3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 (12세)
4관	적인걸(12세)/검우강호(15세)
5관	참을 수 없는(18세)
6관	심야의FM(18세)
7관	월스트리트(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